

人
스토리
아홉 번째
이미형

마음으로 쓴 편지

이야기·그리기: 이미형 듣고 쓰기: 정상민·한지우

“

아들, 너를 키우면서
고되고 힘들었던 순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야.
그래도 그 고된 세월을 다시 겪어야 한다고 해도
엄마는 네 엄마가 되는 길을 택할 거야.
너를 만난 일이 엄마에겐 가장 큰 행운이었어.
그러니 그 행운을 어찌 마다하겠어.

”



사외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천권도서관 人 스토리

스토토리 아홉 번째 이미형

마음으로 쓴 편지

이야기·그리기: 이미형 듣고 쓰기: 정상민·한지우



만나서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덕천BMC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마음의 마음 건 잠깐만 일장해 어떤 마음은 손
과 무얼구나. 어떤 것들 거리가 이상해볼나 봐,
로 어떤 게가 있을 줄로.

잠이 보지 않는 날, 누워 있으면 열차엔 생각이
다들아. 불꽃은 못-서지고 일어나지. 나이를 뛰어
그런가? 이제 열차에서. 열차에서 열차 되고, 열
차가 열차로.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노래 기억하는 것.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마음, 그게 열차에서? 열차는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누구나 열차에서?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 열차